

‘호남 반도체’에 찬물 끼얹는 국힘...정쟁화 빈축

‘반도체공장 전남광주행’ 발표 임박
장동혁 지도부 근거 없는 비판·비난
대구·경북 정치권 뜬금 ‘TK홀대론’
민주당 ‘지역갈등 조장 말라’ 촉구
안도걸 “기업의 경제적 판단 결과”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TK를 홀대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욱·김승수·권영진·이만희·임종득·최은석·김기웅·이진숙·우재준·이상휘 의원 등은 이날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 술 더 떠 페이스북에 각각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다”,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정’(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대용 총알로 쏘면 안 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무책임하게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광주-전남 반도체 이전설’에 대해 감성 섞인 반응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갈등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도걸 원내대표(광주 동남)는 이날 국회 정세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과 풍부한 산업용수, 넓은 산업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남광주가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TK홀대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검토마저 정치적 프레임을 가두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기사 3·4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지방선거 이전부터 반도체 공정을 이전하라는 요구가 나오더니, 드디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든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비장의 카드라는 이



무기력한 패배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조 3위를 확정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림

학교폭력 예방 북(Book) 토크 콘서트

“당신이 옳다”-학교폭력 예방 위한 심리적 심폐소생술

6월30일(화) 오후 2시30분
광주시교육청 연수원 중강당



형성하고 심리적 치유 기반 생활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에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6월30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2026 학교폭력 예방 북(Book) 토크 콘서트’로 열립니다. 행사는 1부 정혜신(사진) 박사의 “당신이 옳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적 심폐소생술(CPR) 주제 강연에 이어, 2부 정혜신 박사와 김주향 장학사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마음을 살리는 공감, 학교폭력 제로를 위한 대화법’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정서적 공감대를

- 행사: 학교폭력 예방 북(Book) 토크콘서트
- 일시: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30분
- 장소: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중강당
- 강연: 정혜신 박사
- 1부 진행: 주진웅 장학사
- 2부 토크콘서트: 김주향 장학사·정혜신 박사
- 주최: 광주시교육청
- 주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광주매일신문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60-2074)

“아무 것도 못했다”...홍명보號, 졸전 끝 충격패

組약약체 남아공에 0대1로 발목 잡혀
손흥민 ‘조커 초강수’·전술 모두 실패
32강 자력진출 수포...벼랑끝 기다림

한국 축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졸전 끝 패배를 당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7·16면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멕시코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에 0대1로 충격패를 당했다. 체코와의 1차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게

최고 멕시코를 상대로 치른 2차전에서 0대1로 패한 홍명보호는 1승2패로 승점 3점에 그치며 3전 전승의 1위 멕시코(승점 9점), 1승1무1패의 2위 남아공(승점 4점)에 이은 조 3위로 내려앉았다. 이번 대회부터 월드컵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토너먼트는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지며 조 3위 12팀 중 성적이 좋은 8팀도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홍명보호는 이제 32강 진출을 위해 28일 마무리되는 다른 조 3위 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비기지만 해도 조 2위가 유력했던 홍명보호는 손흥민을 조커로 쓰는 초강수를 던졌으나 조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에게 오히려 위축된 모습

을 보였다. 전반에만 슈팅 수가 4대10, 유효슈팅은 0대3으로 크게 밀렸다. 이날 홍명보호는 볼 점유율만 높았다. 점유율 68% 경기를 주도했으나 전체 슈팅 8대13(유효슈팅 3대4)으로 상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내줬다. ▶2면에 계속 /박희중기자

Today

- 정지호의 ‘Happy-Bus-Day’-양림교정류장 9면
- 박계영의 몸에 좋은 체질음식-갯장어 14면
- 두산戰 ‘설욕의 중심’ 활동하기 든다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봉선동, 남구청)

-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시뮬레이션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